

멜로드라마, 도덕규범과 감정을 조율하는 근대적 상상력의 역설 — 발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정옥*

1. 서론
2. 남성 중심의 도덕규범과 감정, 가부장제의 재배치와 여성의 도덕적 미덕
3. 프랑스혁명과 여성 배제의 정치,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
4. 결론

국문초록

멜로드라마는 근대 초기 계몽주의 시대에 탄생한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문화와 매체를 넘나들며 유동하고 있다. 따라서 멜로드라마의 분화 원리와 변화의 방향성을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멜로드라마의 형성 과정에 대한 발생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프랑스혁명을 전후한 시점을 중심으로 근대 멜로드라마의 형성 과정과 그 미학적 특질을 고찰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형성된 근대 멜로드라마는 자율적인 시민성을 요구하면서도 시민으로서의 여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근대적 상상력의 역설과 프랑스혁명의 정치적 모순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됐다. 근대 멜로드라마에 재현된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은 분열과 위기에 처한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여성을 도덕적 도상으로 미화함으로써 타락한 사회를 회복하려는 정치적 열망이며, 여성 배제의 정치에 내포된 성차별적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한 감정의 조율이었다.

근대 멜로드라마에 재현된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은 오랫동안 도덕적 위선의 연극, 저급한 통속극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돼왔다. 그러나 1970년대 ‘서크멜로’에서 여성과 인종, 계급을 포괄한 ‘약자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으로 전환함에 따라 멜로드라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폭됐다. 각종 사회문제와 국가적 재난, 전지구적 재앙이 일상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든 현대사회에 이르러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은 성치를 넘어서 다중·다양한 희생자 서사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최근 멜로드라마의 이론적 추이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구체적인 작품 분석에 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주제어: 멜로드라마, 근대적 상상력, 도덕규범, 감정, 근대성의 역설, 프랑스혁명, 여성 배제의 정치, 희생과 눈물의 미학)

1. 서론

멜로드라마는 melos(음악)와 drama의 합성어로 B.C. 5세기 고대 그리스의 비극에서 유래한음악극을 지칭한다. 그러나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멜로드라마는 루소의 〈피그말리온〉(1762)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19세기 대중적인 연극으로 정착됐던 프랑스의 ‘통속극’에 기원을 두고 있다. 멜로드라마는 18세기 프랑스에서 태어나 19세기 유럽을 지배하고 20세기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로 진출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연극과 소설, 영화, TV드라마 등을 넘어 다양한 매체로 전유되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화의 변동에 따라 다면적 양상으로 끊임없이 변주와 변용을 거듭하고 있다. 근대 초기 계몽주의의 영토에서 탄생한 멜로드라마는 포스트모던 시대인 현재까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문화와 매체를 넘나들며 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멜로드라마는 하나의 머리에서 끊임없이 다리가 생겨나는 괴물, 즉 히드라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가 멜로드라마에 대해 매우 친숙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각자가 지칭하는 멜로드라마는 어느 하나로 고정되거나 통합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끄러지거나 균열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멜로드라마에 대해 말하는 모습은 마치 히드라의 수많은 다리 중 어느 하나를 붙잡고 그것이 히드라 전체에 대한 총칭의 언설인 것처럼 여기는 모순적인 형국이 아닐 수 없다.

멜로드라마는 오랫동안 ‘조잡하고 천박한 비예술적인 드라마’, ‘19세기 전반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의 극작을 좀먹던 해충’ 등으로 평가절하돼 왔다.¹⁾ 멜로드라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7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시작됐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대는 사회, 문화, 사상 등 다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68혁명의 영향을 받았던 현대사의 중대 전환기이다. “우리가 1848년(2월 혁명)에서 배웠듯이 21세기는 1968년에서 배울 것”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예견²⁾대로 이 시기에 포스트모더니즘이 대두되면서 근대성에 대한 논쟁이 점화됐다. 또한 이성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감정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으며, 프랑스 혁명기 전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대중문화와 대중문학에 대한 비평과 페미니즘 연구 등이 본격화됐다.³⁾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멜로드라마의

1) 벤 싱어,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이위정 옮김, 문학동네, 2001, 11-12쪽에서 재인용.

2) 잉그리트 길허홀타이, 『68혁명, 세계를 뒤흔든 상상력』, 정대성 옮김, 창비, 2008, 15쪽.

가치와 의미가 재발견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장됐고, 이론의 확장이 다시 창작자와 수용자들에게 자극을 주는 순환적 상호작용을 거쳐 이제 멜로드라마는 더욱더 복잡하게 변용과 변주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멜로드라마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지만,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전통적인 연극의 장르와 양식에 따라 구분하고, 멜로드라마를 정전의 바깥에 존재하는 ‘타락한 비극’으로 소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⁴⁾ 그러나 1970년대에 본격화된 멜로드라마에 대한 연구는 그 이전의 저가 무대 멜로드라마와 선을 긋고 1950년대 미국 영화의 장르 관습(convention)에 관심을 기울였다. 초창기 미국의 영화산업은 서부극, 갱스터, 스릴러, 멜로드라마 등의 장르영화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스튜디오 시스템 중심의 산업구조였기에, 장르연구는 멜로드라마로 규정한 일군의 영화 제작과 수용에 관련된 서사적 관습, 인물 유형, 미장센 등의 분석에 치중했다.⁵⁾ 특히 정신분석학과 페미니즘 연구에 영향을 받아 극에 달한 여성의 감정 억압과 표출을 강조하는 ‘서크 멜로’를 필두로 1950년대 영화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제공했다.⁶⁾ 그러나 장르연구는 멜로드라마를 여성의 감정을 다룬 ‘여성영화’

3) 릭 페리 알랭 르노, 『68사상과 현대 프랑스 철학』, 구교찬 외 옮김, 인간사랑, 1995, 3-12쪽; 윌리엄 M 래디, 『감정의 향배: 감정이론, 감정사, 프랑스혁명』, 김학이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6, 3-9쪽.

4) 대표적인 예로 Cleanth Brooks의 *Understanding Drama*(Holt: Rinehart and Winston, 1948), Clifford Leech의 *Tragedy*(London: Methuen & Co., 1969) 등을 들 수 있다.

5) 대표적인 예로 토마스 셔츠의 『할리우드 장르-내러티브 구조와 스튜디오시스템』(한창호 외 옮김, 컬처북, 2014)을 들 수 있다.

6)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Christine Gledhill (ed.), *Home is Where the Heart Is:*

혹은 여성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을 그린 ‘가족 멜로드라마’와 ‘흠드라마(soap opera)’로 축소시켰고, 20세기 초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 국한시켜 근대 멜로드라마의 역사적 유산을 외면했다.

양식연구는 멜로드라마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가미하여 멜로드라마의 미학적 특질과 그 지속성에 대해 관심을 두었다. 가장 대표적 연구자인 피터 브룩스는 19세기 대중극의 표현 기법이나 독특한 상상력의 양식과 근대소설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멜로드라마의 주제를 ‘도덕적 비학(秘學)’으로 정의하고 멜로드라마를 ‘탈신성화된 시대의 미적 형식’으로 규정한 다음, 이 두 가지를 아울러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이라 칭했다.⁷⁾ 이에 영향을 받아 19세기 미국 영화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적 특성을 분석하여 미국의 이데올로기(신화)를 강화하는 양식을 정리한다거나,⁸⁾ ‘장르영화’ 대신 영화 매체를 아우르는 ‘영화장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멜로드라마를 할리우드 영화 전체의 공통적 특질로 확대시킨 연구가 이어졌다.⁹⁾ 또한 스타일과 감수성의 양식과 장르의 개념을 접목하여 할리우드의 멜로드라마를 야심차게 목록화 하는 작업도 이뤄졌다.¹⁰⁾

멜로드라마를 ‘장르로 볼 것인가’ 혹은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양식으로 볼 것인가’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장르연구와 양식연구는 각 시대와

Studies in Melodrama and the Women's Film, BFI Publishing, 1987; M. Landy, *Imitations of Life: A Reader on Film and Television Melodrama*,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91; Barbara Klinger, *Melodrama and Meaning: History, Culture, and the Films of Douglas Sirk*,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7) 피터 브룩스,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이승희 외 옮김, 소명출판, 2013, 3-23쪽.

8) Jeffery D. Mason, *Melodrama and the Myth of America*,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in-Publication Data, 1993.

9) 베리 뱅포드, 『영화장르, 할리우드와 그 너머』, 방혜진 옮김, 한나래, 2005.

10) 존 머서·마틴 싱글러, 『멜로드라마: 장르 스타일 감수성』, 변재란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사회에 분포하는 다양한 유형의 멜로드라마를 소재와 관습, 또는 서사 양식에 따라 분류하고 특정한 패턴이나 각 유형의 특성을 집약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멜로드라마는 더 이상 제재나 관습에 얽매이는 협소한 장르에 머물러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멜로드라마라는 장르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서사양식이라 칭했던 특성도 위반에 위반을 거치면서 경계가 한없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스크린과 TV 등을 넘어서 다양한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멜로드라마의 양식을 일정하게 규정하기도 어려워졌다. 이런 추세에 따라 연구자들은 점차 18,9세기에 형성된 멜로드라마가 오늘날에도 꾸준히 향유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멜로드라마를 ‘역경과 고통을 통해 미덕과 회복을 성취하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중서사의 양식’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했다. 이어 근대사회에서 형성된 ‘선협적 실향에 대한 보상반응’으로 정의하는 등 멜로드라마와 관련된 근대성 논의로 확대됐다.¹¹⁾ 특히 린다 윌리엄스는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을 미국 대중문화의 근저를 이루는 ‘사고방식의 양식(mentality mode)’으로 확장하고, 이를 담아내는 다양한 서사나 사건을 ‘멜로드라마적 코드’로 칭하여 멜로드라마의 범주를 대폭 확장했다.¹²⁾

다른 한편,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희생자 서사와 멜로드라마를 결합시켜 구성원간의 갈등을 축소하거나 갈등의 본질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이런 방식에 대한 저항성을 담아내는 감정의 문화정치에 주목하는 쪽으로 선회한 연구도 있다. 이는 1989년 이후 정치적으로 냉전체제가 빠르게 해체되고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는 한편, 911테러 등과 같은 크고 작은 국가적 재난과 전지구적 자연 재앙이 일상화되는 불

11) 벤 싱어,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이위정 옮김, 문학동네, 2001, 10-29쪽.

12) Linda Williams (ed.), *Playing the Race Card: Melodramas of Black and White from Uncle Tom to O. J. Simps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p.3-9.

확실성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가가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치체제로 전락하고 개인은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각자 존재하고 홀로 소멸하는 불신과 공포에 사로잡힌 21세기의 포스트 모던적 실상을 반영한 것이다. 재난과 사건·사고를 보도하는 뉴스가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스펙터클하고 드라마틱하게 희생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다루는 등 이제 멜로드라마는 더 이상 허구적 서사양식에 머물지 않고 대중의 감정을 조율하는 문화정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¹³⁾

이상 멜로드라마 연구에 대해 일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멜로드라마는 특유하고 고정적 특질로 통일된 단일 장르가 아니라 감정의 사회심리적 의미를 내포하는 감정의 미학적 양식으로, 18,9세기의 연극에서 출발하여 영화와 문학, 드라마 등 모든 매체로 확산되면서 변용과 변주를 거듭해왔다. 둘째, 멜로드라마는 비련한 여성의 장애 많은 연애담이나 여성의 눈물과 가족과의 갈등을 다룬 가족드라마 등과 같은 여성서사로 굳어졌으나 오늘날 점차 희생자의 눈물과 관련된 희생자 서사로 확장되고 있다. 셋째, 18,9세기 연극에서부터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멜로드라마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급격하게 무너지며 문화와 뉴스도 하나의 텍스트로 소비되는 오늘날에 이르러 더 이상 허구적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허구와 현실을 넘나드는 대중적 상상력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런 공통점은 이미 피터 브룩스가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을 ‘근대적 상상력’으로 확대할 때(1995년 개정판)부터 예견된 것이다. 그러나 멜로

13) 대표적인 예로 Scott Loren & Jörg Metelmann (ed.), *Melodrama After the Tears: New Perspectives on the Politics of Victimhood Film Culture in Transition*,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5과 Christine Gledhill and Linda Williams, *Melodrama Unbound: Across History, Media, and National Cultur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등을 들 수 있다.

드라마의 미학적 특성과 주제를 함의하는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을 곧바로 ‘근대적 상상력’으로 환치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모호한 지점이 있다. 피터 브룩스는 이에 대해 “근대적 불안정성을 도덕을 통해 회복하려는 일종의 소원 충족적 양식인 멜로드라마는 당대의 도덕적 가치와 이데올로기적 요청에 힘입어 도덕을 통해 회복하려는 일종의 보상기제”¹⁴⁾로 설명했다. 그러나 근대적 불안정성의 근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혹은 당대의 도덕가치와 이데올로기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런 가운데 왜 유독 여성의 감상적 눈물을 다루는 감정과잉의 장르 또는 양식으로 굳어졌는지 등과 관련하여 ‘근대적 상상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후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을 대중서사 양식으로 확대한 일련의 논자들 역시 18,9세기 멜로드라마의 유산이 문학이나 영화 등 다양한 허구적 서사나 혹은 현실적 사건으로 확산되는 현상과 실태에 천착하고 있지만 그 유산의 형성과정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유구한 역사성과 부단한 개방성의 속성을 지닌 멜로드라마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멜로드라마의 발생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아우를 때 비로소 온전한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18세기 후반 프랑스혁명기에 탄생한 멜로드라마는 19세기에 대중극으로 정착됐고 문학과 영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히드라처럼 끊임없이 변용과 변주를 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멜로드라마가 처음 생성될 당시 집단적 상상력과 당대의 감정, 그 기원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짚어볼 때 비로소 부단히 새로운 양태로 이행하고 있는 히드라와 같은 멜로드라마의 분화 원리와 변화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프랑스 혁명기에 생성된 근대 멜로드라마에

14) 피터 브룩스,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이승희 외 옮김, 소명출판, 2013, 40-57쪽.

국한시켜, 멜로드라마의 형성과정을 작동시킨 근원에 해당하는 근대적 상상력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 멜로드라마의 성립과정과 그 미학적 특질을 살펴볼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2장에서 멜로드라마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대 프랑스 사회를 지배했던 감정의 성격, 프랑스혁명을 이끌었던 감정의 정치적 역할, 근대 초기 가부장제의 재편과정과 관련이 깊은 도덕규범과 감정의 상관성 등을 중심으로 근대적 상상력과 그 역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3장에서는 멜로드라마의 형성과정과 그 미학적 특질을 고찰하고, 이를 중심으로 18세기 말에 등장한 멜로드라마가 근대의 역사적 산물로 화석화되지 않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주와 변용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멜로드라마 이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멜로드라마가 더 이상 여성서사에 머물지 않고 희생자 서사로 확산되는 동력의 근원 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혁명 전후의 프랑스의 사회와 정치, 문화, 당대의 감정구조 등을 새롭게 고찰한 역사연구와 감정연구, 문화연구 등을 참조할 것이다.

2. 남성 중심의 도덕규범과 감정, 가부장제의 재배치와 여성의 도덕적 미덕

멜로드라마의 형성과정은 프랑스혁명(1789~1794) 전후기의 정치 및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68혁명 이후 프랑스혁명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루소사상이 프랑스혁명

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17세기 중반부터 근대국가 창건을 위한 정치행위와 사회규범의 변화가 일었고 이때 이성 못지않게 감정도 매우 중요하게 작동했으며, 프랑스혁명을 이끌었던 동력은 오히려 감정이었다는 점이 새롭게 밝혀졌다.¹⁵⁾

이런 일련의 연구를 통해 루소(1712~1778)는 ‘프랑스혁명의 아버지’라는 명성을 되찾았고 ‘루소효과’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다. 루소효과란 루소의 저서를 읽은 수많은 독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도덕적 개선(改心)을 실천하고 그 도덕적 개심을 인생의 규범으로 삼았던 막대한 파급력을 일컫는다.¹⁶⁾ 여타 계몽주의자들과 달리 루소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인 신념을 지닌 철학자였으며, ‘악한 정부가 당대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던 시대를 앞선 예언자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당대 철학자들이 경원시했던 18세기 문예공론장에서 소설가, 출판인, 교육학자, 심리학자, 정치학자, 사회비평가, 음악저술가, 작곡가(오페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시민 독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던 오피니언리더였다.¹⁷⁾ 그만큼 봉건제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 중 급격

15)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다. 로제 샤프띠에, 『프랑스 혁명의 문화적 기원』, 백인호 옮김, 일월서각, 1998; 윌리엄 M. 레디, 『감정의 향배: 감정이론, 감정사, 프랑스혁명』, 김학이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6; 안 병상 뷔포, 『눈물의 역사: 18세기-19세기』, 이자경 옮김, 동문선, 2000; 옥영수, 『혁명의 배반 저항의 기억: 프랑스혁명의 문화사』, 돌베개, 2013; 데이비드 에드먼즈·존 에이디노, 『루소의 개: 18세기 계몽주의 살롱의 은밀한 스캔들』, 임현경 옮김, 난장, 2011; 김형선, 『루소의 생애와 사상』, 노란숲, 2011.

16) 안 병상 뷔포, 『눈물의 역사: 18세기-19세기』, 이자경 옮김, 동문선, 2000, 10-12쪽; 로제 샤프띠에, 『프랑스 혁명의 문화적 기원』, 백인호 옮김, 일월서각, 1998, 10-23쪽; 로버트 위클리, 『루소, 18세기를 과격하게 비판한 사상가』, 이종인 옮김, 시공사, 2001, 9-21쪽.

17) 에이나우디, 『루소와 현대』, 박호성 편역, 『루소 사상의 이해』, 인간사랑, 2009, 13-39쪽; 김형선, 『루소의 생애와 사상』, 노란숲, 2011, 253-260쪽; 로버트 위클리, 『루소, 18세기를 과격하게 비판한 사상가』, 이종인 옮김, 시공사, 2001, 15-30쪽; 이기범, 『루

하게 일어난 17,8세기 변화의 물결 속에서 루소는 개인과 사회에 불안과 갈등이 첨예해진 당대인들의 감정구조(structure of feeling)를 정확하게 포착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근대 초기 문예공론장과 프랑스혁명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처럼 루소사상이 프랑스혁명(1789~1794)이라는 역사적 현장을 통과한 지점에서 근대 멜로드라마가 형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루소사상을 중심으로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미친 근대적 상상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근대적 상상력’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다양하고 포괄적이라 한마디로 정리하기 힘들지만, 멜로드라마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목적에 걸맞게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근대를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시기를 지칭하는 시대 구분의 용어로 국한하며, 근대적 상상력을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권(神權) 중심의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개체화되고 자의식적인 주체성에 입각하여 근대의 세속화된 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사고로 볼 것이다. 다시 말해 17,8세기 계몽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중세의 종교와 형이상학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성립된 진리(과학), 규범적 공정성이라는 도덕, 자율적 예술의 발전 등을 통해 일상적 사회생활을 나름 합리적으로 조직화하려 했고, 프랑스혁명의 정신적 지주인 루소에 의해 추동됐던 근대 초기의 집단적 상상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정한다.¹⁸⁾ 이를 기반으로 프랑스혁명기 근대적 상상력의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다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근대적 상상력의 첫 번째 요소로 인간 중심의 도덕규범과 감수

소의 『에밀』 읽기』, 세창미디어, 2016, 32-55쪽.

18) 리타 펠스키, 『근대성과 페미니즘』, 김영찬·심진경 옮김, 거름, 1998, 38-39쪽 참조; 김성기 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19-28쪽 참조.

성(sentiment)을 꼽을 수 있다. 17,8세기는 신의 존재와 불멸성을 부정하고 종교를 인간의 양심과 자연으로 대체한다는 신념에 따라 신의 계시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초자연적인 미신과 무지를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아실현의 자유의지에 대한 각성이 확산됐던 시대였다. 아울러 이성은 생득적인 감수성을 통해 촉진되므로 감수성을 충실하게 따르면 인간다운 도덕적 미덕에 도달한다고 믿었던 사회였다.¹⁹⁾

이러한 인간 중심의 도덕적 규범과 감수성에 대한 신념을 토대로 18세기 문예공론장의 활성화와 맞물려 독서와 연극 등을 통한 정서적 교감과 눈물을 흘리는 감동이야말로 도덕적 교화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관념이 형성됐다. 당시 독서시장에서는 소설읽기가 성행했는데, 눈물을 흘리는 희열감을 강조하는 감상적 독서에서부터 독자들에게 도덕적 개심(改心)과 영혼의 융합을 일으키는 도덕적 독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독서물이 발간됐다. 비극적인 줄거리와 정열에 대한 분석과 도덕관, 등장인물이 보여준 격렬한 감정을 그린 감상소설이 감상적 독서에 해당한다. 도덕적 독서에는 ‘세련된 감동’을 주는 작품이 높은 인기를 누렸다. 세련된 감동이란 상투적으로 눈물을 자극하는 감상적 단계를 넘어서 동요하는 정열(passion)이 감미로운 황홀감과 미묘하게 교차하면서 진정성이 토로되는 느낌을 주고 이를 통해 도덕적 개심에 도달하게 만드는 독서체험을 말한다.²⁰⁾

도덕적 독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출판 직후 70세를 출간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루소의 서간체 소설 〈신엘로이즈〉(1761)가 손꼽혔다. 루

19) 김행선, 『루소의 생애와 사상』, 노란숲, 2011, 42-46쪽; 안 뱁상 뷔포, 『눈물의 역사: 18세기-19세기』, 이자경 옮김, 동문선, 2000, 19쪽.

20) 안 뱁상 뷔포, 『눈물의 역사: 18세기-19세기』, 이자경 옮김, 동문선, 2000, 17-31쪽.

소는 편지 형식을 적극 활용하여 등장인물들 사이에 사적인 감정을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편지로 교류하는 과정에 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 같은 생생한 감동을 안겨주어 도덕적 개심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루소는 자신을 작가가 아닌 실재 일어났던 사건을 직접 목도한 목격자로, 등장인물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 독자에게 전하는 전달자로 설정했다. 또한 소설의 결말에 “편지 모음의 재독(再讀)을 마치면서 나와 독자들이 기분이 좋아진 이유는 흥미가 흥악하거나 죄악에 자극을 받아 고뇌로 뒤섞이지 않고 맑고 순수한 천성을 가졌기 때문²¹⁾”이라는 짧은 소감을 주석으로 달아 놓았을 뿐 철저하게 서사에 개입하지 않는 전략을 취했던 것이다. 이런 전략은 독자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감수성에 충실하게 행동한다면 도덕적 미덕에 도달할 수 있고 마침내 순수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근대적 상상력의 두 번째 요소로 감정과잉의 감상주의(sentimentality, sentimentalism)를 들 수 있다. 루소를 비롯한 당시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자연적인 감수성에 의해 이성을 촉진하여 도덕적 미덕에 도달한다고 설파했지만, 현실에서는 도덕적 감수성을 오히려 타자와 결속시키는 육화된 감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감정과잉의 감상주의(sentimentality, sentimentalism)를 탐닉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당대인들은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자연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믿음에 따라 감정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완전하게 교류하여 확인된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문예공론장에서도 감정을 사회적 결속의 표지로 받아들여 소설을 읽은 독서체험에서 생성된 감수성과 실생활에서 자극을 받은 육화된 감정을 동일한 것으로 여겼고, 미학적 아름다움과 도덕교

21) 장 자크 루소, 『신엘로이즈 2』, 김중현 옮김, 책세상, 2012, 476쪽.

육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했다. 그리하여 점차 감동하여 흘린 눈물의 양을 사랑과 우정의 척도로 삼거나 감동의 눈물을 선사하는 감상적인 소설과 연극을 '도덕교육의 효과'가 높은 예술로 받아들이면서 눈물과 감정교류는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넘었고, 감정과잉은 사적영역뿐 아니라 물론 공적영역에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²²⁾

감정연구와 문화연구자들에 따르면, 18세기 감정과잉의 감상주의의 연속선상에서 벌어진 프랑스혁명은 허구와 현실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연적인 감정이 역사적으로 실현된 감정의 정치드라마이자 문화적 사건이었다. '국가는 사회 일반의지의 대표자다'라는 루소의 정치담론을 따랐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감정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만인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곧 애국적인 행동이라 믿었고, 혁명의 광장에서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만드는 '진실하고 숭고한 감동적인 연설'을 정치적 영향력의 척도로 삼았던 것이다. 심지어 국민 전체를 공포와 테러정치로 몰아넣었던 공포정치의 주동자들마저도 '일반의지', 혁명의 적, '이성의 절대 존엄자'와 같은 새로운 정치언어를 만들어 민중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²³⁾

근대적 상상력의 세 번째 요소로 가부장제의 재배치를 들 수 있다. 루소는 도덕적 미덕을 규범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으로 새로운 가족모델과 고대의 공화적인 시민적 덕성이라는 모델을 제시했다. 전자에 해당하는 〈신엘로이즈〉에서는 엄한 아버지(테탕주 남작)로부터 벗어나 너그러운

22) 윌리엄 M. 레디, 『감정의 향해: 감정이론, 감정사, 프랑스혁명』, 김학이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6, 263-289쪽; 안 병상 뷔포, 『눈물의 역사: 18세기-19세기』, 이자경 옮김, 동문선, 2000, 111-123쪽.

23) 육영수, 『혁명의 배반 저항의 기억: 프랑스혁명의 문화사』, 돌베개, 2013, 154-157쪽에서 재인용; 윌리엄 M. 레디, 『감정의 향해: 감정이론, 감정사, 프랑스혁명』, 김학이 역, 문학과지성사, 2016, 263-289쪽; 안 병상 뷔포, 『눈물의 역사: 18세기-19세기』, 이자경 옮김, 동문선, 2000, 111-123쪽.

남편(볼마르)의 관용 아래 ‘클라랑’이라는 남편의 영지 내에서 사랑하는 애인(생프뢰)과 함께 거주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모델이 제시됐다. 이런 가족모델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정략결혼을 한 여성이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규범에 따라 고통을 감내한 덕분에 순수한 사랑을 지켜내고 마침내 죽음을 통한 사랑의 완성을 보상받게 된다는 가부장제의 미덕을 강조한 것이다.

교육철학서 『에밀』(1762)과 『에밀』의 연극 버전인 〈피그말리온〉(1762)이 후자에 해당한다. 『에밀』은 어린 아이가 유아기와 아동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자연주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의 과정을 거쳐 이상적인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과정을 소설의 형식으로 빌려 서술한 교육철학서이다. 또한 〈피그말리온〉은 고대의 피그말리온 신화를 인격형성에 필요한 자연과 양육의 균형에 대한 논쟁을 자양분 삼아 선한 도덕과 자율성을 갖춘 근대적 시민의 이상형으로 탈바꿈한 것이다.²⁴⁾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새로운 가족모델과 공화적인 시민의 덕성을 기리는 루소의 사상은 17세기 중반부터 일었던 신화 다시쓰기 열풍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 역사·문화연구자들에 따르면, 18세기 근대사회는 경제적인 면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점차 이행하는 근대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고대 공화정의 시대에 정립된 시민적 인본주의 전통과 공화주의적 자치 윤리를 여전히 불문율의 도덕규범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당대인들에게 요구되는 도덕규범과 그들이 처한 사회 현실과의 괴리가 컸던 까닭에 사회 전반적으로 저항심리가 팽배했다. 또한, 신분제사회에서 상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대의를 위해 헌신했던 위대한 영웅들이 사

24) 웬디 무어, 『완벽한 아내 만들기』, 이진옥 옮김, 글항아리, 2016, 106-107쪽.

라지는 풍조를 두려워한다거나 남성들이 ‘여자처럼 나약해져 남자로서의 미덕을 잃어가고 있다’는 불안심리도 만연했다. 저항심리와 불안심리가 교착상태를 이뤘던 18세기 내내 영웅을 존경하거나 허약한 남성을 배척하는 등 불안심리가 반영된 문예물과 회화 등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됐다.²⁵⁾ 이런 맥락에서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피그말리온이나 안티고네 등을 비롯한 고대 신화와 중세의 전설 등을 새롭게 각색하는 풍조가 발레와 오페라, 연극, 회화 등의 예술분야와 문예공론장을 뜨겁게 달궜던 것이다.²⁶⁾ 신화 다시쓰기 열풍은 전근대적인 신성성과 강력한 군주제를 거부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계약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체제로 진입하는 프랑스혁명기의 집단적 사고와 상통한다.

린 헌트는 프랑스혁명 전후의 집단적이고 무의식적인 정치적 상상력을 ‘가족로망스(family romance)’로 설명했다. 가족로망스란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성장과정에서 현실의 친부모를 경시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환상 속의 대리부모로 바꾸려는 심리를 가리키는 프로이트의 용어이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프랑스혁명을 연구한 린 헌트는 이 용어를 차용하여, 절대왕정의 통치체제와 지배질서에서 탈피하고 구성원 사이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적 합의와 계약관계로 대체하려는 프랑스혁명 전후기의 정치적 상상력을 읽어내고, 국왕의 처형에서 멜로드라마의 출현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와 사회 문화의 격동기를 지배했던 집단적 무의식을 포착해냈다. 또한, 루소의 소설을 비롯해 강한 아버지를 제거하거나 자애로운 아버지로 대체하고 진취적인 시민의 성장을 담은 18세기의 프랑스 소설들을 가족로망스를

25) 찰스 테일러,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상길 옮김, 이음, 2010, 125-127쪽; 에두아르트 푹스, 『풍속의 역사 IV. 부르주아의 시대』, 이기웅·박종만 옮김, 까치, 2001, 16-18쪽.

26) 조중걸, 『서양미술사: 철학으로 읽기』, 한권익책, 2013, 212-247쪽 참조; 웬디 무어, 『완벽한 아내 만들기』, 이진옥 옮김, 글항아리, 2016, 106-107쪽.

담아낸 ‘고아소설’로 통칭했다. 아울러 국왕의 운명을 예견하여 좋은 아버지라는 이상의 전파 속에서 국왕의 운명을 만들어냈고, 아버지의 소멸을 상징하는 국왕을 처형시켰던 프랑스혁명을 가족로망스가 빚어낸 문화적 사건으로 봤다. 이런 시선에서 고아소설이 유행했던 18세기 문예공론장의 독서 경향, 프랑스혁명기에 부친살해와 근친상간과 여성혐오가 난무하는 등 정치적 포르노그래피가 급증했던 혁명투쟁의 광장, 멜로드라마의 등장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 아니라 ‘나쁜 왕과 ‘완고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자 했던 프랑스인들의 집단욕망의 산물이었다고 주장했다.²⁷⁾

바꿔 말하면, 루소효과에 막대한 영향을 받은 독자들과 혁명에 참여한 추종자들은 가상적인 소설 속 주인공의 모험과 고난에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정치현실을 감정이입하여 감정과잉의 자기도취적 최면상태에서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혁명을 문화적 사건으로 만들어갔던 것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근대적 상상력의 네 번째 요소로 ‘가정을 수호하는 여성의 도덕적 미덕’을 꼽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루소사상의 핵심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인 선택을 지니고 있을 때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하지만, 사회상태로 이행된 이후 인간은 타락하고 불행해졌다는 것이다. 이미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진행된 사회상태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사회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질서한 성(sexuality)에 있으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매력은 남성들에

27) 린 헌트,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조한옥 옮김, 새물결, 2000, 266-280쪽; 육영수, 『혁명의 배반 저항의 기억: 프랑스혁명의 문화사』, 돌베개, 2013, 184-186쪽.

게 거부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통해 사회질서를 잡아가고 남성을 자율적이고 자존적인 시민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조화로운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성이 출산과 더불어 자녀에게 아버지를 찾아주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므로, 남성과 달리 '성에 대한 정숙성'이라는 도덕적 윤리는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자연의 요구라는 논리를 펼쳤다.²⁸⁾

이러한 루소의 여성관은 교육철학서인 『에밀』에서 건전한 시민의 전형적인 모델로 성장하는 에밀의 교육과정과 남성시민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 소피의 여성교육으로 제시된다. 교사 루소는 에밀이란 소년을 유아기에서 아동기와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 자연주의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이라는 3단계의 교육과정을 거쳐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거시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반면에 에밀의 아내 소피의 교육과정은 에밀과 같은 단계적인 교육은 생략하고 오직 에밀의 '정숙하고 완벽한 아내 되기'에 집중되어 있다. 에밀의 교육은 자유와 독립성을 지닌 시민의 육성에 초점을 두지만, 소피의 교육은 남성 시민의 시민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숙한 아내'되기만을 강조했다. 루소가 묘사한 소피는 순종적이면서 의지가 확고하고 아름답지만 뛰어난 것은 아니고, 정숙하지만 관능적인 여성이다. 루소에게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로서는 남편과 아버지와 평등하지만, 시민이라는 차원에서는 결코 평등하지 않은 존재이다.²⁹⁾

28) 박의경, 『루소, 울스틴크래프트 그리고 여성시민』, 김용민 외, 『루소, 정치를 논하다』, 이학사, 2017, 205-247쪽 참조; 질라 R. 아이젠스타인,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의 급진적 미래』, 김경애 옮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82-143쪽 참조; 박의경, 『루소에 나타난 성과 정치』,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제2호, 2004, 9-46쪽 참조.

29) 장 자크 루소, 『에밀』, 김중현 옮김, 한길사, 2003 참조.

〈피그말리온〉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가 남성시민에 의한 정숙하고 완벽한 아내 만들기의 근대판 로맨스로 그려진다. 그리스의 섬에 사는 문란한 여성들을 혐오하던 피그말리온이 정숙하고 완벽한 아내를 만들기 위해 조각상을 빚어 인간으로 변신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점에서 그리스 신화와 동일하다. 그러나 신화에서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조각상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지만, 루소의 연극에서는 피그말리온의 선한 미덕과 의지에 감동한 조각상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신한다. 피그말리온 신화를 선한 도덕과 자율성을 갖춘 근대적 시민의 이상형으로 탈바꿈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남성시민은 스스로 창조한 이상형의 아내에게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을 창조한 신과 같은 존재로 대체된다.³⁰⁾

또한, 신의 보호 아래 수도사와 수녀(엘로이즈)가 편지를 교환하며 애절한 사랑을 완성했던 12세기의 전설을 새롭게 각색한 〈신엘로이즈〉에서 관용적인 남편은 중세의 신을 대체한 인물로 그려지는 한편, 여주인공 질리는 가정과 사회를 모든 타락의 가능성에서 지켜내는 존재로 그려진다. 남편 볼마르는 질리와 가정교사인 생 프뢰와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의 영지 클라랑에서 함께 머물 것을 제안하며 새로운 가부장적 이상사회를 실현한다. 질리는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가족의 질서와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를 정리하며, 남편과 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결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상 볼마르의 영지는 볼마르가 정한 '클라랑의 질서'가 작동하는 완고한 가부장제 사회에 불과하다. 외면상 행복해 보이는 질리의 삶은 볼마르의 명령에 따른 하인들의 철저한 감시체제 아래, 볼마르 부인으로서의 도덕적 미덕과 생 프뢰와 나누는 사랑의 감정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는 권태로운 나날의 연속에 지

30) 웬디 무어, 『완벽한 아내 만들기』, 이진옥 옮김, 글항아리, 2016, 106-107쪽 참조.

나지 않다.

그럼에도 루소는 소설의 말미에서 세속적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 가면서도 아내로서 정숙한 순결과 고결한 품위를 지킨 질리의 도덕적 미덕에 대해 예찬할 뿐이다. 이처럼 루소에게 남성은 자체의 가치로서 정의로운 시민이 될 수 있지만, 여성은 성적인 기능과 재생산의 기능이라는 이중 잣대가 작용된다.³¹⁾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자율적인 시민사회를 구현한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루소사상은,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한 남성사회의 정립으로 드러난 것이다.³²⁾

이상과 같이 근대 멜로드라마의 발생은 프랑스혁명의 정치, 문화, 집단적 상상력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루소사상을 중심으로 근대적 상상력을 살펴봤다. 인간 중심적 도덕규범과 감수성, 감정과잉의 감상주의, 새로운 가족모델과 공화정의 시민적 덕성에 기반을 둔 가부장제의 재배치, 가정을 수호하는 여성의 도덕적 미덕은 서로 충돌하며 긴밀하게 얽혀 있는 모순과 역설의 양상을 띤다.

근대적 상상력의 역설은 근대 서구의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교차하는 18세기 유럽사회의 모순적인 사회역사의 현주소와 일치한다. 조셉 피더스톤에 따르면, 근대 서구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자율과 평등 및 합리성의 가치 측면에서 꾸준한 진보의 과정으로 보는 '장기혁명'의 관점과 근대 이전의 공동체를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중세 이후의 서구 역사를 인간의 재앙이 되는 거대한 근절에 관한 이야기로 보는 '잃어버린 공동체'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18세기의 유럽사회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첨예하게 교차된 시대였다. 다시 말해 사

31) 장 자크 루소, 『신엘로이즈』 1, 2, 김중현 옮김, 책세상, 2012 참조.

32) 박의경, 『루소, 울스틴크래프트 그리고 여성시민』, 김용민 외, 『루소, 정치를 논하다』, 이학사, 2017, 217쪽.

상적으로는 타인과의 통합에 이르는 공동체적 시민이라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하는 계몽주의가 우세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공동체로 돌아가야 비로소 도덕적 미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신념을 수용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평등은 시민의 덕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사회의 무질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여겼던 모순의 시대였다.³³⁾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루소사상의 모순은 도덕적 미덕을 지닌 자율적인 시민이 지켜야 할 도덕규범과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평등은 인정하지 않는 이중심리를 오가는 근대인들의 감정구조를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담당했다. 결국 루소가 이끌었던 근대적 상상력의 역설이 프랑스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과하면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여성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모순으로 이어졌고, 그 근대적 상상력의 역설과 프랑스혁명의 정치적 모순의 교차지점에서 근대 멜로드라마가 탄생됐던 것이다.

3. 프랑스혁명과 여성 배제의 정치,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

근대 멜로드라마는 루소의 <피그말리온>(1762)에서 기원하여 19세기 중반 대중극으로 정착됐다. 루소의 멜로드라마는 자유의지를 지닌 남성 시민의 정숙한 아내 만들기에 성공한 로맨스 서사와, 오페라의 형식을 차용하여 대사 사이사이에 음악을 번갈아 제시한 음악극을 결합한 독백극이다. 이에 반해 19세기의 멜로드라마는 여성의 수난서사와 음악극과

33) 조셉 피터스톤, 『루소와 근대성』, 박호성 편역, 『루소 사상의 이해』, 인간사랑, 2009, 414-433쪽.

무언극(판토마임) 등이 혼합된 대중극으로 정착됐다. 이처럼 18세기 루소의 멜로드라마와 19세기의 멜로드라마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 거리는 양자 사이에 가로놓인 프랑스혁명(1789~1794)과 19세기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예술의 상업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근대 멜로드라마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연극의 하위 장르로 정착한 멜로드라마에 방점을 두는 예술사적 접근과 프랑스혁명의 사회분열에 대한 대응물로 보는 역사·문화적 접근으로 나뉜다. ‘감정과잉의 도덕극’이 멜로드라마의 미학적 특질로 굳어진 원인은 전자에 속하는 장르연구자들이 멜로드라마의 연구사적으로 가장 먼저 선점한 데 있다. 그러나 이들은 멜로드라마의 미학적 특질을 생산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시대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68혁명 이후 프랑스혁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멜로드라마를 프랑스혁명의 사회분열을 반영한 시대적 산물로 보는 연구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멜로드라마가 여성의 희생과 눈물을 다룬 가족드라마로 정착된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또한 18세기 말에 등장한 멜로드라마가 근대의 역사적 산물로 화석화되지 않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주와 변용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근원적 동력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런 한계는 루소에 의해 추동됐던 근대적 상상력의 역설이 프랑스혁명을 통과하면서 나타난 정치적 모순을 포착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기존 연구에 대한 간략한 고찰과 비판적 검토를 거친 다음 멜로드라마 형성과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르연구의 원조인 아놀드 하우스에 따르면, 19세기의 멜로드라마는 그 이전의 독백극과 시민극, 무언극 등에서 여러 가지 요소와 형식을 혼합한 통속극이며, 고전 비극을 변용한 기교적 형식과 주제와 모티브 등

을 바탕으로 무언극의 연극적인 무대 효과와 음악을 결합한 ‘타락한 비극’이다. 멜로드라마는 ‘갈등 상황의 전개 → 충돌 → 권선징악의 대단원’의 서사 공식을 고수하며, 공통적으로 죄가 없는 선한 여인을 괴롭히는 악당과 희극적 인물들이 등장한다. 또한 무언극의 영향을 받아 과잉의 제스처와 생경한 무대 효과 등을 남발하고, 무자비한 운명에 휘둘리는 가련한 여인을 통해 권선징악을 회유하는 방식으로 도덕성을 강조한다. 때문에 멜로드라마를 ‘인습적이고 도덕적이고 위선적인 장르’라 비판했다.³⁴⁾

이를 기반으로 연극이론가들은 비극의 절제된 감정과 멜로드라마의 감정과잉의 비교연구로 발전시켰다. 비극과 멜로드라마는 진지한 행동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환기시켜 정화에 이른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멜로드라마에서는 감정과잉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비극은 인간이 운명에 패배할 것이라는 조건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의지를 통해 거역할 수 없는 운명에 도전하고 극복하는 긴장감을 다루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관객들은 비극적 인물의 공포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감정을 통해 인간과 운명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극적 미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가혹한 운명과 악에 대한 공포와 증오의 감정에 맞서 자신의 선함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해야 하므로, 인물의 고통과 공포는 악당의 책략을 제거하는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정점에 이르게 되고 순간적인 강렬함으로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작가와 배우는 관객들의 정서적 몰입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짧은 순간의 강렬한 감정을 최대한 증폭시키는 감정과잉을 추구하게 됐다는 것이다.³⁵⁾

34) 아놀드 하우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근세편 하』, 염무웅·반성완 역, 창작과비평사, 1981, 234-238쪽.

이처럼 멜로드라마를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감정과잉의 가족드라마 혹은 도덕극’으로 정의하는 장르연구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mass culture)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전자에 속하는 비극에 기준하여 멜로드라마를 통속극으로 폄하했다. 또한 멜로드라마의 발생적 계보와 연극 텍스트의 문법과 미학적 특질에만 주목할 뿐, 그것을 생산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시대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피터 브룩스는 장르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프랑스혁명 이후 사회상황과 멜로드라마의 문법을 관련시켜 양식연구로 발전시켰다. 그에 따르면, 멜로드라마는 계몽주의가 종언(終焉)에 이르렀던 프랑스혁명 이후 전통적인 도덕적 질서가 파괴되고 신성함에 대한 부활이 일었던 사회상황에서 악의 승리로 불안의 기운을 드러내고 선의 승리로 불안의 기운을 제거하는 ‘도덕주의적 드라마’이자 ‘도덕성에 관한 드라마’이다. 멜로드라마는 도덕적 미덕에 대한 극적인 찬미를 표현하기 위해 마니교적 이분법과 무언극에서 차용한 선악의 대립과 흑백의 승리, 과장된 진술, 지나친 강조, 수사학적 과잉 등의 표현기법을 활용했으며, 19세기 낭만주의 연극과 맞물려 사건의 급작스러운 변화와 우연성, 과장과 호연장담, 타블로와 재현의 조형성, 음악의 표현적 효과를 활용하는 극작술이 개발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19세기 멜로드라마의 미학은 ‘도덕적 상상력에 관한 감정과잉의 양식’이다.³⁵⁾

피터 브룩스는 멜로드라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켜 대중들이 향유했던 대중극으로 격상시켰으며, 멜로드라마의 양식을 19세기 모더니즘문학과 공유하는 ‘근대적 상상력’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멜로드라마

35) 이는 『멜로드라마 1』(오세준 편역, 책피냄열린시, 2006)에 실린 로버트 코리건의 『비극과 비극의 정신』(283-293쪽)과 켄트 갤러거, 『비극의 정서와 멜로드라마의 정서』(294-303쪽)를 참조한 것이다.

36) 피터 브룩스,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이승희 외 옮김, 소명출판, 2013, 23-145쪽.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멜로드라마의 텍스트 내적 양식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장르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멜로드라마의 발생과 프랑스혁명 이후 사회상황과의 연관성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혁명 이후에 등장한 낭만주의 연극의 영향에 초점을 두었으며 19세기 자본주의의 발달로 이미 예술의 상업화 경향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멜로드라마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관점을 취했다. 더욱이 멜로드라마의 발생을 프랑스혁명 이후 붕괴된 기존 질서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도덕성을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와 연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멜로드라마를 ‘신성성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 더 이상 비극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반응물’로 봄으로써 멜로드라마의 도덕성을 ‘도덕적 비의(秘儀)’로, 미적 형식을 ‘마니교적 이분법’으로 귀착시켰다. 이는 프랑스혁명에 관한 연구물이 축적되기 이전에 발표된 연구가 갖는 한계로, 멜로드라마에 투영된 루소사상의 역할과 프랑스혁명의 정치적 모순의 연관성을 숙고하지 않은 결과이다.

다른 한편, 최근 프랑스혁명에 관한 역사·문화·감정연구들이 축적됨에 따라 멜로드라마를 프랑스혁명기의 사회분열과 정치적 모순을 반영한 시대적 산물로 보는 관점이 부상했다. 흥미롭게도 이런 연구들은 프랑스혁명을 인간이 빚어낸 사건 중에서 가장 스펙터클한 이야기이며,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이 넘쳐흐렀던 희극과 비극이 혼합된 ‘역사적 멜로드라마’로 규정했다.³⁷⁾ 또한 위대한 사건의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했다는 경외심, 적을 향한 복수심, 공화주의에 대한 기대와 낙관, 폭력에 대한 신비스러운 미화 등은 혁명 이후에도 프랑스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기억과 낭만으로 남아 19세기의 대중문화로 흡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³⁸⁾

37) 마크 스틸, 『혁명만세』, 박유안 옮김, 바람구두, 2008, 327-332쪽 참조.

이런 논의의 대표 주자 린 헌트는 프랑스혁명을 ‘드라마적인 새로운 정치문화의 정착’이라 규정하고, 혁명기의 집단적인 상상력과 정치적 무의식을 ‘가족로망스’로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픽세레쿠르의 〈빅토르, 혹은 숲의 아이〉 등을 비롯해 1795년부터 1800년대 초에 등장한 초기 멜로드라마와 19세기 중반의 후기 멜로드라마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즉, 초기 멜로드라마는 위기에 몰린 가족관계를 재설정하고 가족의 정체성에 관한 주제를 많이 다뤘으며,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처형당한 사람, 반역자, 폭군, 해방자 등과 같이 혁명과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을 다루는 정치적 알레고리에 해당하는 작품도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초기 멜로드라마를 프랑스혁명기의 진취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유용한 시민, 행복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다는 해방감을 심어주고 사회적 신분상승과 새로운 가족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도덕감정의 교육을 위한 문예물로 규정했다.

이에 반해 19세기의 후기 멜로드라마는 초기 멜로드라마의 형식과 주제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결혼이나 아버지와 자식 간의 화해 등의 주제를 다루는 식으로 전화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개인과 가족 간의 불안정한 상태를 바로잡는 가장으로서의 남성, 모성에 충실한 어머니와 정숙한 아내의 역할에 복귀하는 여성, 어린 남아자이들을 사회의 상징적 존재로 등장시키는 등 가족 간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게 굳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런 변화는 19세기에 들어서 프랑스혁명으로 인해 무너진 질서를 복구하고 새로운 정체(政體)를 확립하기 위해 멜로드라마를 가족이데올로기 강화를 위한 감정의 문화정치로 활용한 결과라 주장했다.³⁹⁾

38) 김민제, 『프랑스혁명의 이상과 현실』, 역민사, 1998, 135-143쪽.

당대 상황에 대한 문화연구물은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즉, ‘멜로드라마의 아버지’라 불리는 픽세레퀴르가 1795년에 발표한 초기작 〈숲의 아들, 빅트와르〉에 대한 당대 평자들 역시 “그의 멜로드라마에 나타난 극적 긴장감은 가장 위대한 역사 드라마를 거리에서 연기한 프랑스혁명의 사람들이 직접 체험한 감정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픽세레퀴르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관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화려한 무대와 공포스러운 비극적 사건, 막간의 희극과 무용, 스펙터클한 음악과 격렬한 감동을 주는 에피소드 등을 총동원하여 강렬한 무대를 꾸몄는데, 이런 무대효과는 혁명의 광장에서 화약과 피 냄새를 맡았던 관객들에게 격렬한 감동과 걱정적인 정동(affect)을 환기시켜주는 감정과잉의 효과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멜로드라마를 관람하는 관객들은 다함께 혁명의 광장에서 경험했던 공포와 불안을 환기하며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과잉에 사로잡혔고, 동시에 미덕과 모성애, 효심, 관대한 헌신 등을 묘사하는 대사를 따라 도덕적 선한 감정에 도달하는 경험을 공유했다고 한다.⁴⁰⁾

다른 한편,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극장에 대한 국가적 검열제도가 완전 철폐됨에 따라 연극이 노골적으로 상업화되고 무대 장치나 조명 등 획기적인 기술발전을 오락적 기능으로 이용하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도시 서민계층의 성장과 더불어 멜로드라마는 19세기의 대표적인 대중 연극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프랑스혁명의 집단적 눈물이라는 사회적 연대가 사라진 19세기 후반의 멜로드라마는 18세기 멜로드라마에서 보였던 저항과 해방의 표현물이라는 위험한 탈을 완전히 벗고 탈정치적인 오락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⁴¹⁾

39) 린 헌트,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조한욱 옮김, 새물결, 2000, 250-264쪽.

40) 안 뱁상 뷔포, 『눈물의 역사: 18세기-19세기』, 이자경 옮김, 동문선, 2000, 300-305쪽.

린 헌트는 프랑스혁명기에 강한 아버지를 부정하고 자애로운 아버지와 모성에 충실한 어머니로 구성된 새로운 가족제도의 확립을 통해 남성시민을 육성하려는 가족로망스라는 집단적 상상력이 멜로드라마에 '가족 도덕극'으로 투영됐다는 점을 새롭게 밝혀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멜로드라마의 미학적 특질이 여성의 희생과 눈물을 다룬 '비련한 여성의 가족드라마로 정착된 과정에 대해서 온전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은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계몽주의와 가부장제가 공유하는 가족로망스라는 상동성에 집착한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프랑스혁명의 여성배제의 정치와 초기 멜로드라마 성립과정의 연관성에 대해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2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루소사상의 선악 이분법이 당대 인민들의 심금을 건드려 발발한 프랑스혁명은 단순한 불만이 반역으로 변질될 수 있는 상황과 '모든 재앙에 사악한 원인이 있다'는 믿음이 맞아떨어져 음모와 공모가 난무하는 격동의 사건이었다. 혁명권력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절대왕권의 구체제(앙시앙 레짐)를 부정하고 새로운 시민사회를 수립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적대세력을 제거하는 처단정책과 반발세력을 포섭하고 저항심리를 유화하는 정화정책을 병행했다.⁴²⁾

문제는, 이 이중의 통치전략이 '희생양 메커니즘의 폭력성'을 동반한다는 점에 있다. 희생양 메커니즘이란 어떤 공동체가 파멸과 분열의 위기에 처하게 될 때 무고한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안정과 질서

41)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문명화과정 II』, 박미애 옮김, 한길사, 1999, 336-338쪽; 안 병상 뷔포, 『눈물의 역사: 18세기-19세기』, 이자경 옮김, 동문선, 2000, 319-324쪽; 펠리샤 룬드레이, 『빛과 어둠의 도시: 파리와 프랑스 낭만주의 연극』, 오세준 편역, 『멜로드라마 1』, 책피넛출판사, 2006, 310-312쪽; 김문환 외, 『19세기 문화의 상품화와 물신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98-115쪽.

42) 찰스 테일러,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상길 옮김, 이음, 2010, 204-205쪽.

를 회복하는 한편 그 위기의 책임을 희생양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희생양 메커니즘은 정화작업과 신성화작업을 통해 작동된다. 정화작업은 공동체 내부와 외부의 경계선에 위치하면서도 복수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회적 약자를 선별하여 위기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희생양에게 전가함으로써 공동체의 분열과 위기를 극복하는 단계이다. 이어지는 신성화작업은 희생양에 폭력을 감행한 후 공동체에 화해와 단결을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희생양을 최고의 도덕성과 미덕을 발휘한 성스러운 존재로 미화하는 단계이다.⁴³⁾

공포정치의 혁명정부가 선포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장전’(1789)은 희생양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남성들의 애국집단(fraternity)을 결집시키고 저항세력을 차단하는 통치전략의 진수를 보여준다. 혁명세력은 이를 기반으로 여성들을 세금 낼 능력이 없는 하층계급의 남성과 이민자, 정신병자, 어린이 등과 동일하게 ‘수동적 시민’으로 분류하여 ‘시민권’에서 배제(1792)했다. 아울러 여성을 시민으로 인정하면서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정치적 모순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성의 시민권을 요구했던 올랭프 드 구즈와 롤랑부인을 공개처형하고, 이들에게 ‘프랑스를 분열시키려는 정신병자’, ‘본성을 거스르는 악의 화신’, ‘공공안녕의 교란자’ 등 사회악의 근원이라는 죄목을 덧씌워 여성과 어머니로서의 미덕과 자연적 본성을 망각한 대가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 마땅하다는 모순적인 정치 이념을 합리화했다. 또한, 여성들의 모든 클럽을 불법화하고 혁명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공적 영역에 출몰한 나쁜 여성’이자 여성 본연의 미덕을 망각한 ‘방탕한 아내’로 규정하며, 공적 영역에서 여성들을 추방하여 사적 영역으로 봉인해버리는 차단정책을 강화했다.⁴⁴⁾

43)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석·박무호 옮김, 민음사, 1997, 9-60쪽 참조; 김모세, 『르네 지라르: 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살림, 2008, 215-235쪽.

다른 한편으로, 혁명권력은 ‘혁명에 방해되는 대다수 타락한 자들을 포섭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발세력들을 참수형에 처하고 그 목을 막대 위에 전시하는 ‘머리 잘린 인형축제’를 펼친다거나, ‘공화정의 어머니 퍼레이드’를 활용해 피비린내 나는 혁명의 공포와 불안을 잠재우는 감정의 문화정치로 활용하는 정화정책을 병행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역할을 약화시키고 혁명적인 남성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혁명의 상징물인 ‘자유의 여신상’을 헤라클레스로 대체했다. 또한 단결축제 행사의 참가자를 아내와 어머니로 한정하고 임신한 여성들을 퍼레이드에 내세워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자연적 질서에 충실한 덕성으로 숭배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당시 유명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가 기획한 ‘연합과 통합의 축제’(1793.8)로, 혁명의 대표자들이 어머니 형상을 한 거대한 동상의 유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재생의 물을 마시며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 또한 자애로운 어머니를 찬미하는 각종 선전물, 일러스트, 신문광고, 회화 등을 배포하여 혁명의 수사학을 확대·재생산했다.⁴⁵⁾

이처럼 프랑스혁명은 여성에서 사회적 신체를 소거하고 오직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육체적 신체만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을 가정에 충실한 ‘공화정의 여성’과 남성시민을 내조하는 ‘수동적 시민’에 국한시켰다. 여성은 양육자인 유방을 가진 존재이며 남성은 자연을 정복하는 시민이라는 이분법적 규정을 정립하고, 성적 술책과 사악하고 감정적이며 허영과 변

44) 린 헌트,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조한욱 옮김, 새물결, 2000, 164-173쪽 참조; 육영수, 『혁명의 배반 저항의 기억: 프랑스혁명의 문화사』, 돌베개, 2013, 37-50쪽 참조; 이세희, 『프랑스대혁명과 여성·여성운동: 페미니즘의 파란만장한 드라마』, 탐북스, 2012, 30-71쪽, 114-117쪽.

45) 조앤 스콧,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공임순 외 옮김, 앨피, 2017, 132-133쪽; 린 헌트,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조한욱 옮김, 새물결, 2000, 213-218쪽.

덕스러운 속성을 지닌 여성이 덕과 이성, 정치적 기능을 지닌 남성을 내조하는 것이야말로 분열의 위기에 처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혁명적 이념을 강화했다.

이 혁명적 이념은 생물학적인 성차에 근거하여 시민권 획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면서도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서만 시민의 권리를 부여했던 여성배제의 정치를 정당화한 것이다. 혁명권력은 모든 정치적 반대를 공화국에 대한 반역으로 몰아세우는 맥락에서, 여성의 시민권을 요구한 여성들을 ‘진보를 가로막는 죄수’이자 ‘미래의 적’으로 낙인을 찍어 정치 무대에서 추방했다. 한마디로, 여성배제의 정치는 인간에서 여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에서 여성을 배제한 루소사상의 모순을 제도적으로 현실화한 역설에 해당한다.⁴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화와 혁명이라는 메타포는 남성 중심적인 정치적 근대성의 혈통을 간직하면서 근대 문화영역에 침투한 규범적 기획과 근대에 대한 지배적인 태도의 틀을 형성했다. 이런 점에서 근대 멜로드라마는 남성 중심적인 정치적 근대성의 혈통이 분열과 위기에 직면하자 여성의 희생과 눈물을 담보로 봉합했던 프랑스혁명의 이데올로기적 반영물인 동시에, 여성으로부터 사회적 신체를 소거하고 오직 육체적 신체에 가둔 채 여성에게 가정복원의 의무를 덧씌운 여성 배제의 정치적 산물이다. 나아가 자율과 평등, 합리성의 가치를 향해 전진하는 진보적인 인간중심적 상상력과 초자연적이고 도덕적 절대성을 지닌 근대사회 이전의 ‘잃어버린 공동체’로 회귀하려던 보수적인 가부장적 상상력이 격렬하게 충돌했던 프랑스혁명의 모순을 가부장적 도덕규범으로 당대인의 감정을 조율했던 역설적인 근대적 상상력의 문예물이다. 프랑

46) 이세희, 『프랑스대혁명과 여성·여성운동: 페미니즘의 파란만장한 드라마』, 탐북스, 2012, 30-71쪽; 조앤 스콧,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공임순 외 옮김, 엘피, 2017, 133쪽.

스혁명의 역설과 여성 배제의 정치가 중첩된 지점에서 탄생한 근대 멜로드라마는, 여성을 숭고한 도덕적 도상(icon)으로 미화함으로써 분열과 위기에 처한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성차별적 비극성과 폭력성을 엄폐한,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의 재현이다.

린 헌트가 밝힌 대로 프랑스혁명기에 발생한 18세기의 멜로드라마는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처형당한 여성과 남성, 반역자, 폭군, 해방자 등과 같이 혁명과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을 그린 정치적 알레고리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프랑스혁명의 공포와 불안 등 격동의 감정을 다룬 비극적 서사로 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 헌트는 18세기 멜로드라마를 가족로망스의 재현으로 봤던 시각에 함몰되어, 보수적인 지배담론이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을 성차별적인 프랑스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선징악이라는 상투적인 도덕규범의 관습(convention)을 통해 당대인들의 저항적 욕구를 억누르는 도덕감정을 위한 계몽의 문화정치로 활용한 점만을 부각시켰다.⁴⁷⁾ 그리하여 18세기 멜로드라마가 재현하는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 즉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프랑스혁명의 모순을 봉합하려 했던 가부장적 폭력성과 여성을 도덕적 미덕의 도상으로 숭배하는 성차별적인 비극성을 읽어내지 못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 근대 멜로드라마에 대한 연구는 남성 중심적 부르주아의 도덕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행복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다는 해방감과 사회적 신분상승과 새로운 가족을 보장하는 환상을 심어주는 도덕계몽의 문화정치로 활용됐던 점에 대해 비판적 읽기나 전복적 읽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최근 들어 감정을 개인의 본성적 성향이나 인식론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산물로 보는 감정연구자들조차, 근대 멜로드라마의 감정

47) 린 헌트,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조한욱 옮김, 새물결, 2000, 250-264쪽.

과잉이 프랑스혁명의 폭력성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심리를 발산하는 ‘사회감정적인 것(socioemotional)’이라 주장하면서도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과의 관련성을 여실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근대 멜로드라마를 감정적 힘과 정동(affect)의 강렬함을 통해 프랑스혁명의 역사와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사회적 산물이자, 프랑스혁명 이후 곧바로 자유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유토피아적 상실감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적 안전장치로 파악했던 것이다.⁴⁸⁾ 그리하여 초기 근대 멜로드라마에 무고한 희생자들과 힘센 승리자들이 쏟아내는 도덕적 웅변과 파토스가 압도적으로 투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희생을 도덕적 미덕의 숭고한 도상으로 미화했던 성차별적 폭력성에 가려진 여성들의 눈물과 상실감에 대해서는 묵과했다.

예외적으로 감정의 과잉과 은폐에 관심을 두었던 서크 멜로드라마 연구자들과 감정을 한 사회의 집합적 태도로 봤던 레이먼드 윌리엄스만이 근대 멜로드라마의 이런 점에 주목했을 뿐이다. 토마스 엘세서는 근대 멜로드라마가 18세기 말에 비극적인 서사로 출발했지만, 정치·경제적으로 안정화된 19세기에 들어서 남성 중심적 부르주아사회의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관습으로 변질되어 악한을 물리치는 선한 시민의 도덕적 승리와 무자비한 운명에 휘둘리는 가련한 여인을 통해 권선징악의 도덕 계몽을 강조하는 감상적인 서사로 전환함으로써 여성의 감정이 은폐됐다고 비판했다.⁴⁹⁾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삶의 질

48) E. Deidre Pribram, "Melodrama and Aesthetics of Emotion", *Melodrama Unbound: Across History, Media and National Cultures*, Christine Gledhill and Linda Williams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pp.242-244; Methew S. Buckley, "Refuge Theatre: Melodrama and Modernity's Loss", *Theatre Journal* 61.2, 2009, pp.175-190.

49) Tomas Elsaesser, "Tales of Sound and Fury Observation on the Family Melodrama", *Home is Where the Heart Is: Studies in Melodrama and the Women's Film*, Christine Gledhill (ed.), BFI Publishing, 1987, pp.43-46.

에 대해 공유하는 특정한 감정을 그 사회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집단주체들의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는 문화적 지표로 읽어냈다. 이런 맥락에서 결혼의 신성함과 도덕적인 가정을 중시한 19세기의 멜로드라마는 여성에게 고결하고 순결한 도덕성을 요구하면서도 여성의 욕망을 억압하고 여성 희생의 비극성과 폭력성을 엄폐하는 부르주아 남성의 계급의식을 담은 악질적인 미학이라 비판했다.⁵⁰⁾

근대 멜로드라마에 재현된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멜로드라마를 비롯한 여성적 장르에 대한 페미니즘적 재해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타 펠스키는 대중문화가 보수적 지배담론과 대항적 담론, 순응적 담론과 비판적 담론이 상호 연결된 대중적인 것과 위반적인 것의 이중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했다. 멜로드라마에 내재된 이러한 이중성을 포착하면, 운명과 사투를 벌이는 비극적 주인공의 초월적 숭고미를 기준으로 삼고 멜로드라마의 미학을 저급하고 타락한 숭고미로 폄하했던 오래된 편견의 문제점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리타 펠스키는 대상에 대한 압도적인 두려움이나 공포와 동일시하는 남성적 이미지의 칸트적인 숭고는 역사적으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숭고는 주정주의, 환희, 자아상실 등 여성적인 것으로 성별화된 감정과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칸트적인 숭고미를 기준으로 삼아 멜로드라마의 숭고미를 저급하고 타락한 것으로 폄하한 불균형적이고 편협한 시각을 수정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대중적 숭고(popular sublime)’라는 개념을 창안했다. 대중적 숭고의 개념은 무한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열망을 표현하는 모든 표상을 포함할 뿐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것을 향한 낭만적 동경이야말로 여성성을 호명하는 대중문화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⁵¹⁾

50) 레이먼드 윌리엄스, 『기나긴 혁명』, 성은에 옮김, 문학동네, 2007, 386-409쪽 참조.

이런 관점을 수용하면, 근대 멜로드라마에서 재현되는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은 여성들에게 부과하는 도덕적 미덕이라는 이상적인 동경은 실상 거역할 수 없는 근대적 상상력의 역설이 여성에게 가하는 가부장적인 정치권력의 횡포를 표상한다는 점, 분열과 위기에 처한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여성을 도덕적 도상으로 미화함으로써 여성의 도덕적 순결성을 통해 타락한 사회를 회복한다는 숭고한 열망은 실상 여성 배제의 정치에 내포된 성차별적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한 감정의 조율이라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아울러 여성의 눈물의 미학은 프랑스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희생제의를 정치적 폭력성과 비극성에 대한 저항심리가 격렬한 감정과잉으로 표출된 것이자, 폭력성과 비극성에 위축된 보잘 것 없는 여성자아에 대한 자기연민의 노출이라는 점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멜로드라마에 대한 연구에서, 18세기 멜로드라마에서 재현됐던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은 외면당해왔다. 가장 큰 원인은 일차적으로 프랑스혁명 직후에 탄생한 근대 멜로드라마가 과도하게 배우의 감정연기를 강조했던 연극이었다는 특수성으로부터 오랫동안 타락한 비극, 인습적이고 도덕적 위선의 연극, 심리학적 깊이감이 없는 저급한 통속극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돼왔던 데 있다. 또한 배우의 감정연기가 강조됐던 까닭에 그 원본에 대한 기록물이나 대본을 중시하지 않아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 나아가 19세기에 들어 사실주의 연극이 부상함에 따라 인물과 관객과의 정서적 동일시를 억제하는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을 재현하는 18세기 멜로드라마가 지닌 사회비판적인 정서와 심리적 저항성이 증발됐고, 자본주의의 발달로 고급시설을 갖춘 극장이 대두함에 따라 대중극

51) 리타 펠스키, 『근대성의 젠더』, 김영찬·심진경 옮김, 자음과 모음, 2010, 218-267쪽 참조.

으로서의 멜로드라마는 ‘과잉 양식의 저급한 무대 멜로드라마’로 상업화의 길을 걸었고 그런 이미지가 굳어졌던 것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멜로드라마 연구가 폭발하기 시작했던 1970년대에 ‘서크멜로’에 관심이 집중됐던 원인 역시, 근대 멜로드라마에서 재현된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이 서크멜로에서 여성을 넘어서 인종과 계급으로 확산되어 ‘약자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로 전환됐던 미학적 상동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멜로드라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고, 다양한 형태의 매체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추세와 더불어 멜로드라마는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변용과 변주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각종 사회문제와 국가적 재난, 전지구적 재앙이 일상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이라는 근대 멜로드라마의 특질은 성치를 넘어서 이제 다양한 차별로 구획되어지는 다중·다양한 희생자 서사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또한 당대의 감정 에너지를 정체(政體)내로 수렴했던 근대국가와 달리, 정리되지 않은 사회적 경험이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감정은 더 이상 인식론적 차원이나 연대적 감정의 공감을 넘어서 저항성을 지닌 유동적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혹은 무기력한 불안과 공포심리로 확산되고 있다. 근대적 상상력의 역설과 프랑스혁명의 정치적 모순이 교차한 지점에서 탄생한 멜로드라마가 근대적 산물로 화석화되지 않고 히드라처럼 끊임없이 변주와 변용을 거치면서 유동을 멈추지 않는 이유이다.

국내의 멜로드라마 논의는 대중문학과 대중문화에 학문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점화되기 시작했다. 초기 논의는 주로 동시대 영화와 드라마, 문학 등에 대한 작품 분석이나 트렌드 분석에 편중됐었다.⁵²⁾ 그러나 점차 멜로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확산됨에

52) 대표적으로 유지나 외, 『멜로드라마란 무엇인가: 〈자유부인〉에서 〈접속〉까지』(민음

따라 근대 초기 신파의 수용과 그 영향 등을 비롯한 신파성에 대한 연구⁵³⁾와 미국 할리우드 멜로드라마의 영향과 수용양상 연구 등 다방면으로 확대됐고,⁵⁴⁾ 이를 토대로 한국적 멜로드라마의 특성을 고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⁵⁵⁾

이처럼 활발한 연구 상황에도 불구하고, 멜로드라마 연구는 근대 서구에서 탄생하고 서구사회의 역사와 문화적 변동과 맞물려 히드라처럼 끊임없이 변용과 변주를 거듭하고 있는 속성을 지닌 연구 대상의 특성이 지닌 문제점과, 유구한 역사성과 부단한 개방성의 서구문물을 수용한 비서구 지역사회의 연구자들이 갖는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전세계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와 문화상품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매체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매몰되어 과거의 흔적과 발자취를 도외시하고 오직 현재만을 중시하는 현재주의(present-ism)에 머물러 있다거나, 서구의 산물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사, 1999)가 있다.

- 53) 대표적으로 이호걸의 『신파양식 연구: 남성 신파영화를 중심으로』(중앙대학교 첨단 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이영미의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장한몽〉에서 〈모래시계〉까지』(푸른역사, 2016); 강옥희의 『대중 신파 영화 소설: 대중소설의 재발견』(지금여기, 2013); 우수진의 『한국 근대연극의 형성: 공공극장과 신파극의 대중적 문화지형』(푸른사상, 2011) 등을 들 수 있다.
- 54)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윤종의 『어느 할리우드 키드의 분열적 오마주: 이장호의 〈Y의 체험〉으로 보는 1980년대 한국에서 할리우드의 의미』(『대중서사연구』 22권 1호, 2016, 91-142쪽); 정사강·김훈순의 『한국멜로영화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서사적 실험과 장르관습』(『기호학연구』 43권, 2015, 227-261쪽); 정승언의 『1950년대 한국 멜로영화 스타일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엄상희의 『1930년대 장편소설의 멜로드라마적 구성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등을 들 수 있다.
- 55) 대표적으로 대중서사장르연구회의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1, 멜로드라마』(이론과 실천, 2007); 윤석진의 『한국 멜로드라마의 근대적 상상력』(푸른사상, 2004); 진선영의 『한국 대중연에서사의 이데올로기와 미학』(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등이 있다.

특성에 따라 전유와 변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특수성을 형성하고 있지만 서구의 이론이나 작품을 원본으로 삼아 한국의 작품 분석에 무리하게 대입하거나 혹은 자의적인 판단 아래 맥락에 맞지 않는 이론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멜로드라마를 포함한 대중서사와 대중문화 연구는 현재의 동향을 중시하는 ‘트렌드의 유행’, 서구라는 ‘원본의 유행’과 원본을 모사하고 이식하는 ‘식민의 유행’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적 산물로 화석화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주와 변용을 거치면서 유동을 멈추지 않는 멜로드라마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한국적 독자성을 형성하고 있는 멜로드라마에 대한 논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스스로 앞에서 열거한 유행에 사로잡혀 있음을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거에 유입되고 이식된 식민의 유행이 비서구사회의 일상적 현재에도 짙게 드리우고 있을 뿐 아니라, 서구라는 유행이 여전히 비서구사회에 서성이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이중화작업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⁵⁶⁾ 본 논문은 이런 이중화작업의 첫 발걸음에 해당한다. 멜로드라마가 처음 발생할 당시 집단적 상상력과 당대의 감정, 그 기원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짚어볼 때 비로소 부단히 새로운 양태로 이행하고 있는 멜로드라마의 분화 원리와 미학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통해 미국 할리우드영화의 멜로드라마 기법과 미학을 원본으로 삼고 있는 국내 멜로드라마 연구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56) 해리 하르투니언, 『역사의 요동』, 윤영임·서정은 옮김, 휴머니스트, 2006, 74-79쪽 참조.

4. 결론

지금까지 살펴 본대로 멜로드라마는 근대 초기 프랑스 혁명기에 탄생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사회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매체의 변동을 거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변주와 변용을 거듭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부단한 개방성을 지닌 멜로드라마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 총괄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호명되고, 그에 대한 논의 역시 방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멜로드라마의 실체를 온전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변용과 변주를 거듭하는 분화원리와 변화의 방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멜로드라마의 형성과정에 대한 발생론적 접근을 통해 프랑스혁명을 전후한 시점을 중심으로 근대 멜로드라마의 형성과정과 그 미학적 특질을 고찰했다.

2장에서는, 멜로드라마가 ‘프랑스혁명의 아버지’라 일컫는 루소의 사상이 프랑스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과한 지점에서 태동했다는 점에서, 루소의 사상을 중심으로 프랑스혁명에 미친 근대적 상상력을 살펴봤다. 프랑스혁명을 이끌었던 근대적 상상력은 인간 중심적 도덕규범과 감수성, 감정과잉의 감상주의, 새로운 가족모델과 공화정의 시민적 덕성에 기반을 둔 가부장제의 재배치, 가정을 수호하는 여성의 도덕적 미덕으로 요약되며, 이 요소들은 서로 모순적으로 얽혀 있다. 근대적 상상력의 모순은 자율적인 시민이 지켜야 할 도덕규범과 여성의 사회적 평등을 배제하는 근대인들의 감정구조를 증폭시켰고, 프랑스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과하면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여성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역설로 이어졌다.

3장에서는, 자율적인 시민성을 요구하면서도 시민으로서의 여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근대적 상상력의 모순과 프랑스혁명의 정치적 역설이 교

차하는 지점에서 멜로드라마가 탄생되는 과정과 그 미학적 특질을 살펴 봤다. 근대 멜로드라마는 남성 중심적인 정치적 근대성의 혈통이 분열과 위기에 직면하자 여성의 희생과 눈물을 담보로 봉합했던 프랑스혁명의 이데올로기적 반영물이며, 여성으로부터 사회적 신체를 소거하고 오직 육체적 신체에 가둔 채 여성에게 가정 복원의 의무를 덧씌운 여성 배제의 정치적 산물이다. 이처럼 프랑스혁명의 역설과 여성 배제의 정치가 중첩된 지점에서 탄생한 근대 멜로드라마는, 여성을 숭고한 도덕적 도상으로 미화함으로써 분열과 위기에 처한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성차별적 비극성과 폭력성을 엄폐하는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의 재현이었다.

이처럼 근대 멜로드라마에 재현된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은 분열과 위기에 처한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여성을 도덕적 도상으로 미화함으로써 타락한 사회를 회복하려는 정치적 열망이며, 여성 배제의 정치에 내포된 성차별적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한 감정의 조율이다. 그러나 근대 멜로드라마에 재현된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은 오랫동안 도덕적 위선의 연극, 저급한 통속극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되며 학문적 조명의 사각지대에 수장(水漿)돼왔다. 그러나 1970년대 ‘서크멜로’에서 여성과 인종, 계급을 포괄한 ‘약자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으로 전환함에 따라 멜로드라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비로소 시작됐다. 각종 사회 문제와 국가적 재난, 전지구적 재앙이 일상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드는 현대사회에 이르러 ‘여성의 희생과 눈물의 미학’은 성차를 넘어서 다중·다양한 희생자서사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멜로드라마는 근대적 산물로 화석화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주와 변용을 거치면서 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서구의 멜로드라마를 이식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 맞게 전유와 변용을

거친 한국적 멜로드라마의 독자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서구라는 원본의 유령과 식민의 유령이 현재의 한국의 대중문학과 대중문화에 짙게 드리우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멜로드라마의 이론적 추이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구체적인 작품 분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한국 멜로드라마의 독자성이 밝혀질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52 대중서사연구 제25권 1호

멜로드라마, 도덕규범과 감정을 조율하는 근대적 상상력의 역설 / 이정옥 53

Melodrama, the Paradox of Modern Imagination Coordinating
Moral Norms and Emotions
— Based on the Developmental Approach

(Keywords: melodrama, modern imagination, moral norms, emotion, paradox of modernity, French Revolution, politics of exclusion of women, aesthetics of sacrifice and tears)

논문투고일: 2019년 1월 7일

논문심사일: 2019년 2월 1일

수정완료일: 2019년 2월 9일

게재확정일: 2019년 2월 14일